

[H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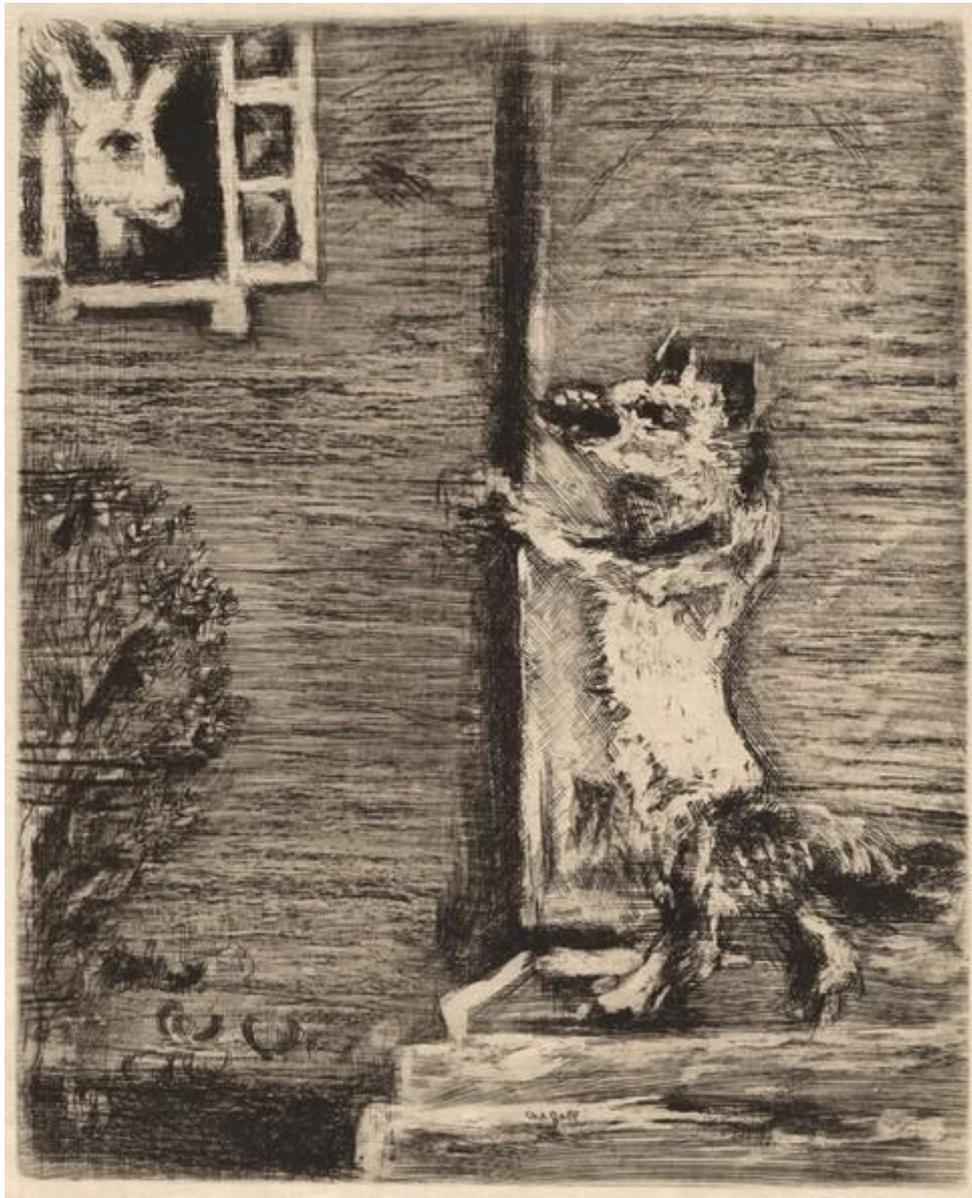
OCTOBER COLLECTION

10. 1. – 10. 31.

PHILIP. HAN.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0. 1. 토. 라퐁텐 우화에 수록한 에칭 판화 감상



The Wolf, the Goat and the Kid. 1927-30. National Gallery



Goldmark Catalog

[라퐁텐 우화] 늑대와 염소와 새끼염소

염소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신선한 풀을 뜯으러 나가면서 걸쇠로 문을 잠그며 새끼 염소에게 말했다.

"얘야, 살고 싶으면 어미 말을 명심해라. 우리 암호인 '망할 놈의 늑대들'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늑대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잘 기억해 놓았다. 새끼 염소는 아직 너무 어려 늑대를 본 적이 없었다. 어미 염소가 떠나자마자 늑대는 어미염소로 변장하고 목소리를 흉내 내며 문 앞에서 "망할 놈의 늑대들!"이라고 말했다. 늑대는 금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새끼 염소는 수상한 생각이 들어 갈라진 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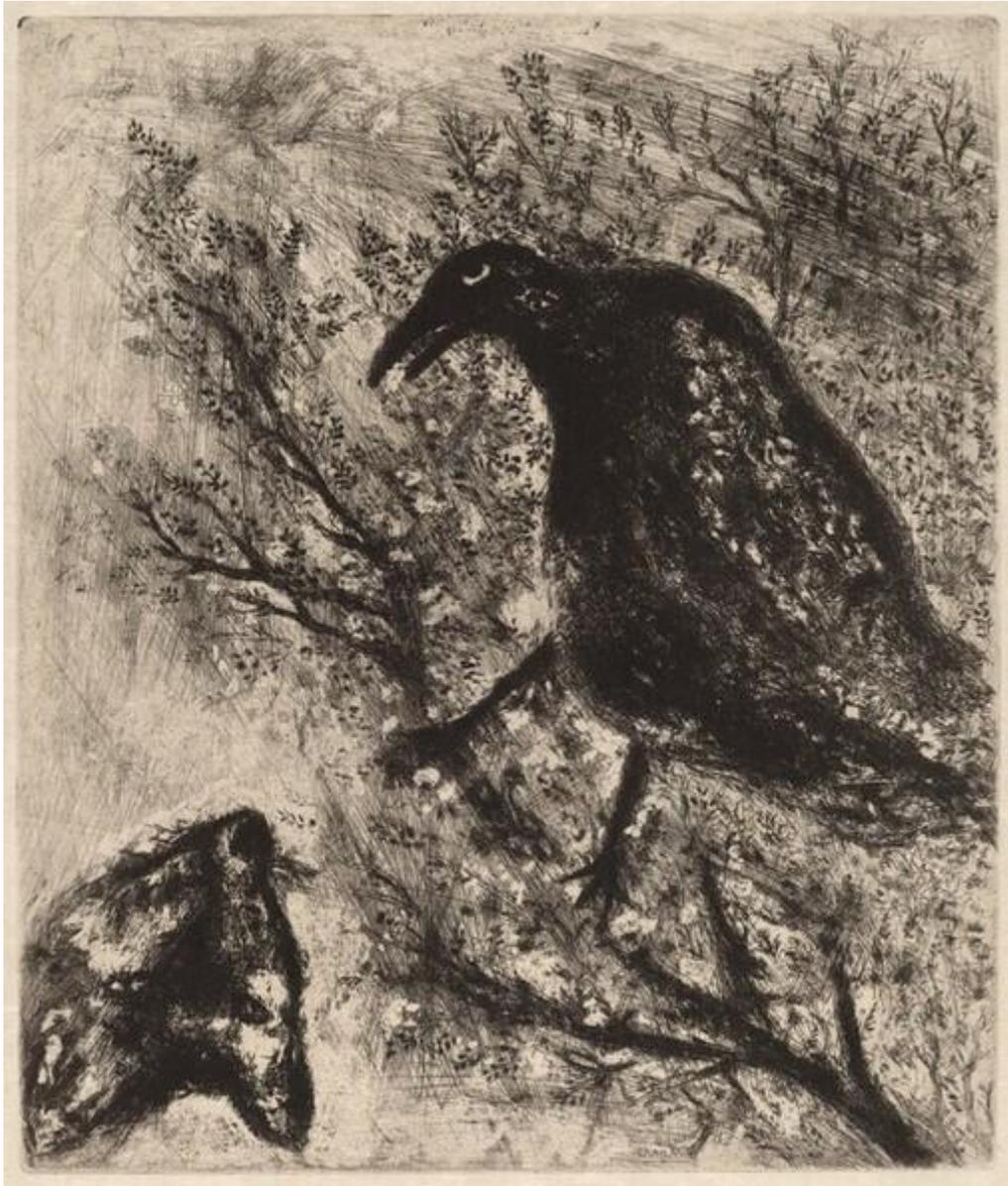
"우리 엄마 하얀 발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겠어요."

늑대가 하얀 발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 말을 들은 늑대는 새끼 염소를 앞잡아 본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고 실망스러워 하며 돌아가 버렸다.

만약 늑대가 말한 암호를 새끼 염소가 무심코 믿었더라면, 그 후 새끼염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 확인하는 것은 한번만 확인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비용을 들여 할 만하다. 가끔 손해 보는 것 같긴 하지만.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0. 2. 일. 까마귀와 여우



National Gallery



Goldmark Catalog

[라퐁텐 우화]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 한 마리가 부리에 치즈를 물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그 냄새에 유혹을 느낀 여우가 말했다.

"안녕, 까마귀 님! 당신은 정말 멋지군요! 무척 잘 생겼어요!
진심으로 말하 건대, 당신의 목소리까지 깃털 색깔과 어울린다면
당신은 이 숲 속 최고의 주인이 될 거예요. 진심이에요."

여우의 말에 까마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부리를 크게 벌렸다.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치즈가 떨어져버렸다.
여우는 그것을 짹째 찌지하고는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여, 모든 아침꾼은 그의 말에 속는
사람들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치즈는 아마도 그러한 가르침의 대가로 충분할 것 같소."
까마귀는 부끄럽고 당황한 중에도 조금 늦긴 했지만
다시는 그런 말에 속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지혜로운 영혼을 위한 240 가지 이야기. 시공사. 2004.]

“시선이 재밌다. 까마귀는 샤갈의 시선으로 여우는 까마귀의 시선이다. 입체파
기법이 이런 것인가 싶다. 얘기는 여우의 감언이설에 속은 까마귀가 먹이를
놓쳤다는 설정이다. 이솝 우화가 먼저다. 다른 점은 까마귀가 입에 문 것이
이솝은 '고기', 라퐁텐은 '치즈'일 뿐이다. 모방을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설정였을까. 왜, 치즈였을까? 루이 14 세 왕권이 절정인 시절, 그 위세를
배경으로 귀족은 사회 지도층을 자부했다. 하지만 라퐁텐이 포착한 귀족은
권력을 탐닉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불과했고, 그 욕망 주변은 언제나 모리배
차지였다. 수 세기 역사는 이런 설정의 결말을 일러주고 있다. 이 까마귀처럼
허세 심하고 지각없는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왕조는 늘 끝물이었고, 곧
사라졌다는 점이다. 내가 아는 한 곳이 지금 그렇다. 서글프다.”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0. 3. 월. 여우와 염소





leviathan.heni.com. 1952



poulwebb.blogspot.com

"이번 라퐁텐 우화는 '여우와 염소'이다. 우물에 빠진 여우가 있었다. 마침 목이 마른 염소가 왔다. "어이, 여우 양반 물 맛이 어떨소" 물었다. 여우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내가 아무리 좋다 한들 맛보지 않고는 이 기막힌 맛을 모를 거외다" 풍덩~ 염소가 뛰어 들었다. 여우 말을 들어서인지 갈증 때문인지

모르지만 물 맛은 좋았다. 이제 다시 올라가야 하는 데, 그 찰나 여우는 "염소 양반 당신이 앞 발을 벽에 서면 내가 당신 등을 밟고 뿔을 밟고 먼저 올라가서 당신을 구하리라!" 하지만 여우는 휘파람을 불며 사라지고 있었다. 아차 싶은 염소가 괴성을 지르며 여우를 향해 욕지거리를 퍼붓자 여우가 우물로 돌아왔다. "염소 양반, 당신의 지혜가 당신 수염만큼만 길었더라면, 그렇게 무모하진 않았을 것이 외 다. 당신의 아둔함을 탓하십시오!" 여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사라졌다. 라퐁텐은 얘기 말미에 '어떤 길을 가든 끝을 잘(또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남겼다.

spaightwoodgalleries 는 이 얘기를 담은 에칭 작품을 이렇게 설명했다. 'Dead Soul' 때와는 다르게 소재 표면을 돋보이게 하는 바니시 일명 니스라는 도료를 씌으로써 회화적 요소가 돋보였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선은 자칫 눈살을 찌푸리게 할 법이지만 샤갈의 섬세한 판화 기법이 되레 에칭 동판화의 매력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 전 Dead Soul 판화와 비교했을 때 라퐁텐 우화는 판화 특유의 선이 선 답고 그 선이 만드는 날카로움은 뾰족한 느낌은 아니다. 되레 글이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상황에 대한 긴장감과 우화가 가지고 있는 풍자성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몇 차례 국내 전시회에서 눈 흘김으로만 봤던 판화 작품을 보는 묘미를 실감하고 있다.

샤갈의 라퐁텐 우화 에칭 판화 작품을 탐색하면서 꽤 저명한 갤러리 사이트를 방문한다. 이번 작품 정보를 알게 된 spaightwoodgalleries 는 아담한 정원이 있는 마치 은퇴한 노부부가 교외에 운영하는 갤러리 같은 느낌이었다. 반면에 leviathan.heni.com 은 현대 미술 이른바 컨템퍼러리 작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갤러리 콘셉트이었다. 샤갈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작품성과 상업성 그리고 애깃거리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이다. 아, 그나저나 이 세계는 여우처럼 사는 사람이 많을까? 염소처럼 사는 사람이 많을까? 우화는 그 답을 항상 독자에게 묻는다."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0. 7. 금. 공작 깃털로 장식한 어치





gallerease.com

gallerease.com 은 2016 년 설립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보다는 고객과 아트딜러를 연결. 특정 작품을 찾고 싶거나 영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급 검색 엔진 서비스

공작한 마리가 털갈이를 했다.

그때 어치 한 마리가 그의 깃털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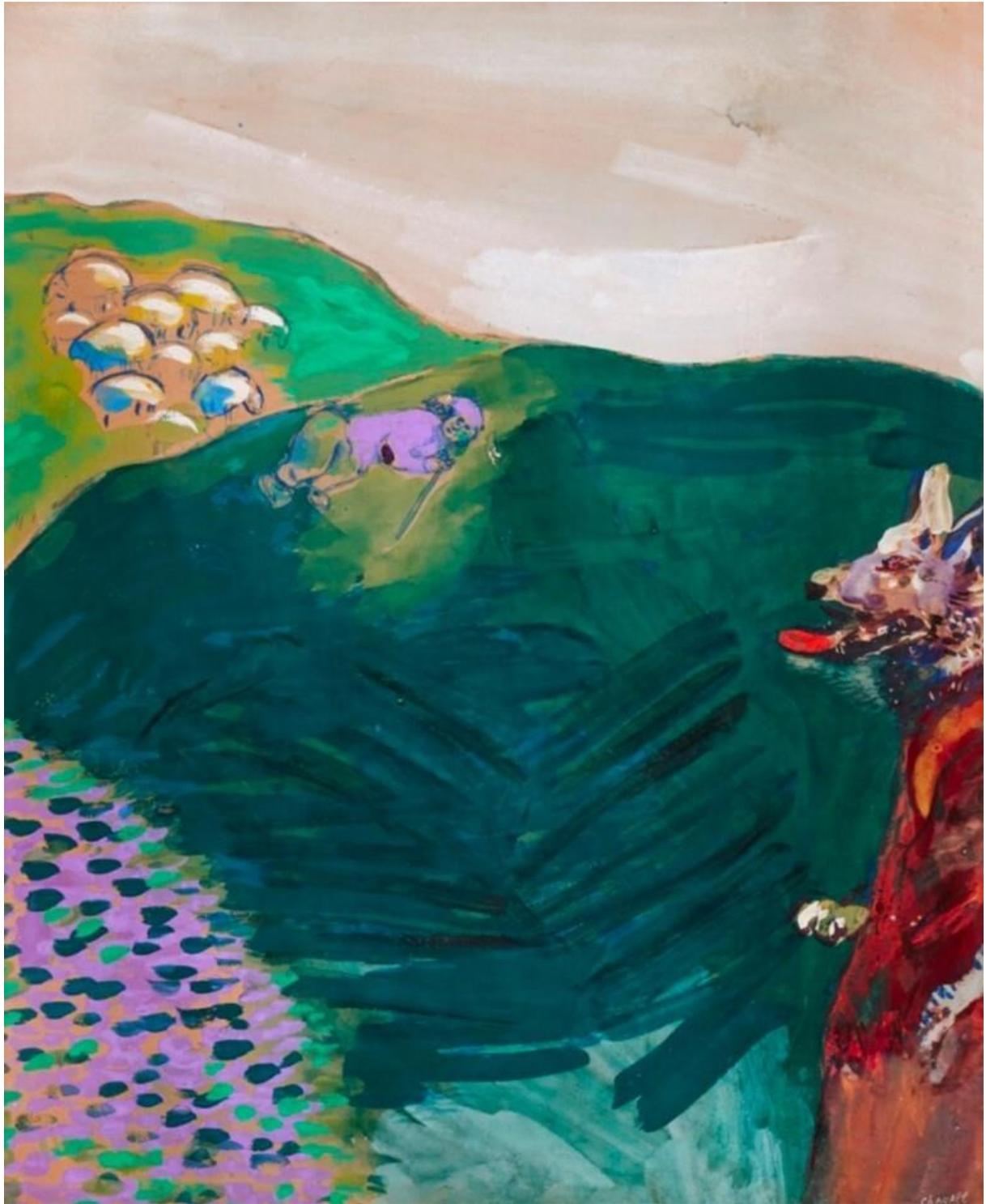
어치는 공작의 털로 장식을 하고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믿으면서,
다른 공작들 사이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뽐내며 걸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치를 알아보았다.
어치는 공작들에게 야유와 놀림과 비웃음과 무시를 당하고는
그들에 의해 이상한 모습으로 털까지 뽑히게 되었다.
어치는 자기 종족에게로 피신을 했으나,
그곳에서도 문밖으로 쫓겨났다.

인간들 중에도 어치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겉질로 자신을 치장하는 자들로서
바로 표절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영혼을 위한 240 가지 이야기. 시공사. 2004.]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0. 14. 금. 에칭 판화 감상

양의 탈을 쓴 늑대 The Wolf Turned Shepherd



Gouache sur papier. 50,5 x 41,5 cm. helenebailly.com. 1927

늑대와 새끼 양 The Wolf and the Lamb



1stdibs.com

1stdibs.com 은 '벼룩시장'에서 영감을 얻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을 판다 라는 캐치플레이즈가 인상적인 곳.

인간과 자신의 모습 The Man and his Image



artsupp.com

artsupp.com 은 이탈리아 관광지과 미술관과 박물관, 예술계 소식을 전하는 플랫폼. 덜 알려진 박물관 소개가 특징적.



11.6x9.6in. Etching on Japon paper. mutualart.com

mutualart.com 예술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눈과 귀로써, 데이터 기반 예술 시장 분석 자료를 콜렉터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라퐁텐 우화. 인간과 자신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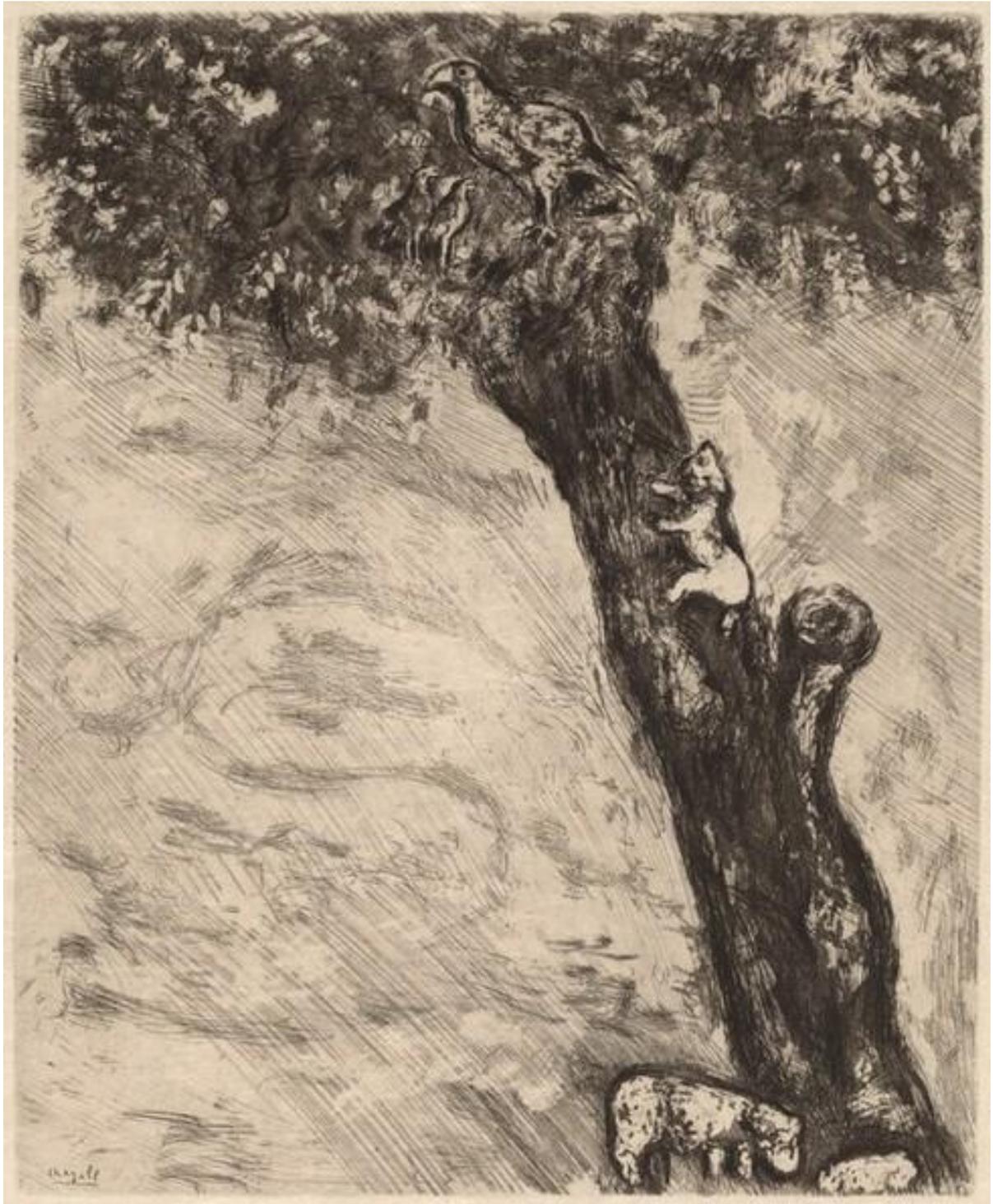
스스로를 무척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생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심각한 착각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는 그는
항상 거울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했다.
운명의 여신은 그가 무척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그의 도처에 여자들이 사용하는 말 없는 조연자를 배치했다.
집에도 거울을, 상인들의 상점에도 거울을,
신사들의 주머니 속에도, 여자들의 허리춤에도 거울들을 보이게 한 것이다.
그러자 우리의 나르키소스는 어떻게 했을까?
거울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 그는
가장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은둔하러 갔다.
그런데 무척 투명하고 맑은 호수가 그 외딴 곳에 있었다.
그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의 눈에
자신의 모습은 마치 성난 괴물의 형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그 호수는 매우 아름다워서
외면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모두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알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이 지독한 착각은 우리 모두가 벗어던지지 못하는 결점이다.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와 같다.
수많은 거울은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또한 우리의 단점들을 정직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모두들 알다시피 호수는 잠언집이다.

[지혜로운 영혼을 위한 240 가지 이야기. 시공사. 2004.]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0. 14. 금. 에칭 판화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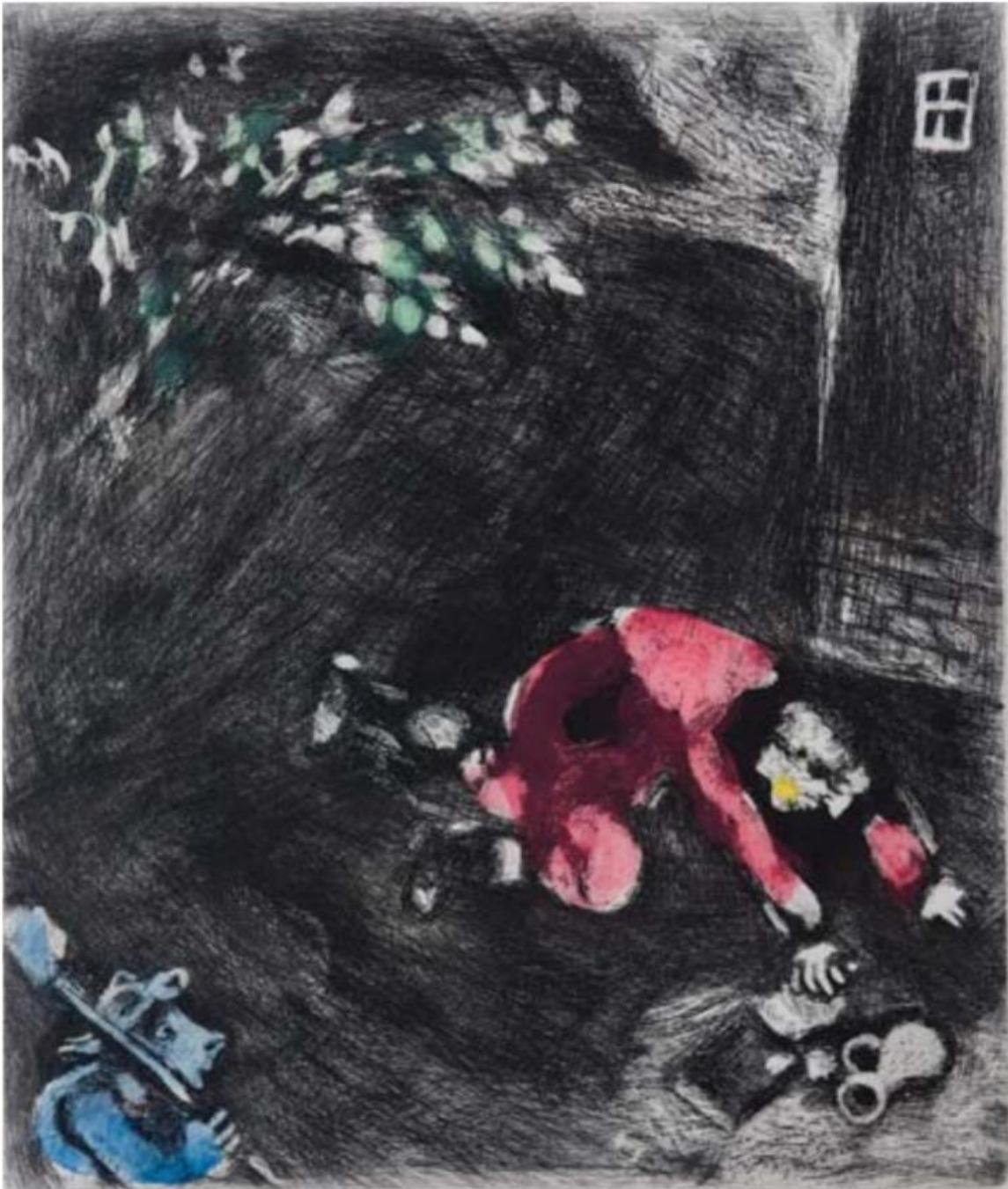
National Gallery

National Gallery 는 '국가에 대한 선물로 탄생했다는 소개가 인상적임. 150,000 점 이상 작품
보관 전시 행사하는 미국 워싱턴. <https://www.nga.gov/>

독수리와 암멧돼지, 암고양이, 라퐁텐이 말하는 이 우화의 교훈

"음흉한 혀가 사악한 간교에 의해서 꾸며내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판도라의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불행들 중에서 모든 우주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당연히 남을 속이는 것이리라."



보물을 잃어버린 구두쇠, 라퐁텐은 이 우화를 이렇게 시작한다.
"재물은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데 온갖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EL PAIS. 1976 년 설립한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미디어 랩. 본사 마드리드. 스페인 바야돌리드 시에 있는 파시온 박물관(Sala del Museo de la Pasión)의 시립 전시실에는 장 라 폰텐(Jean La Fontaine)의 우화에 대한 러시아 예술가 마크 샤갈(Marc Chagall)의 원본 판화 100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2012.3.27 보도).

늑대와 어머니와 아이. 이 우화는 전래동화 '호랑이와 꽃감'과 유사하다.

[라폰텐 우화. 늑대와 어머니와 아이]

앞에서 말한 이야기 속의 늑대는 그보다 더 호되게 당한 그의 동료 하나를 생각나게 한다.
그 늑대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 시골 사람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
문제의 그 늑대는 문밖에서 흑시나 하는 횡재를 노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 집에서 온갖 종류의 사냥감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들, 새끼 양과 암양들, 칠면조 부대들,
한마디로 맛있는 먹이들이었다.
그러나 늑대 도둑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아이를 몹시 꾸짖으면서, 만약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를 늑대에게 주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 말을 들은 늑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머니가 소중한 자식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들려왔다.
"아가야, 울지 말거라. 늑대가 오면 우리가 죽어버릴 거야."
늑대가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다르다니?
나 같은 동물을 이렇게 취급해도 된단 말인가? 나를 바보로 알다니?
언젠가 저 꼬마가 숲 속으로 개암나무 열매를 따러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늑대는 집 밖으로 나왔다.
그때 뜰에 있던 개가 늑대를 가로막았다.
사냥 창과 긴 쇠갈퀴가 사방에서 늑대를 겨누고 있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

사람들이 늑대에게 물었다.

늑대는 즉각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 어머니가 늑대에게 말했다.

"맙소사! 내 덕분에 네가 내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내가 자식을 네 놈 늑대 놈한테 줄 거라는 말을 정말로 믿었던 말이냐?"

사람들을 그 불쌍한 짐승을 죽여서 앞발과 머리를 잘랐다.

마을의 영주는 그것을 자신의 문 앞에다 전시해 놓고는

그 둘레에 다음과 같은 피카르디 지방의 속담을 써놓았다.

'훌륭한 늑대님들,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영혼을 위한 240 가지 이야기. 시공사. 2004.]

Epilog

시월, 라퐁텐 우화와 샤갈 에칭 판화를 읽고 보고 쓰며 낙엽을 맞이하고 있다. 그중 우화 1 권 '바람' 편이 기억에 남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스라소니 눈으로, 자신에게는 두더지 눈'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표현은 날카롭고 재미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내 눈도 두더지 눈인지 타인을 향할 때는 스라소니 눈으로 변하는 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 반대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을 바라볼 때는 두더지 눈으로, 스라소니 눈으로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푸앵 그림.

[라퐁텐 우화 제 1 권 바람]

어느 날 제우스 신이 말했다.

"이 세상의 숨쉬는 모든 것은 위대한 나의 신전 앞으로 출두하도록 하라.
만약 생김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말해도 좋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자, 원숭이여, 이리로 오너라. 네가 첫 번째로 말해 보아라.

저 동물들을 보고 네 자신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보아라.

너는 스스로 만족하느냐?"

원숭이가 말했다.

"저요?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는 다른 동물들처럼 발이 네 개 있잖아요?

게다가 여태까지 내 초상화는 아무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 친구 곰은 겨우 윤곽만 그릴 수 있었답니다.

내 생각에 곰은 결코 만족할 만한 초상화를 그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곰이 나왔다. 모두들 곰이 불평을 늘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곰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자랑을 늘어 놓으며 코끼리에 대해 험담했다.
코끼리는 꼬리를 좀더 붙이거나 귀를 조금 잘라내야 하는데,
심지어 몸매마저 틀이 잡히지 않아
아름답지 않은 큰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코끼리 차례가 되었는데,
무척 현명한 코끼리조차도 비슷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코끼리는, 고래가 왕성한 식욕 때문에 매우 똥똥하다고 판단했다.
개미는 옴벌레가 매우 작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신은 거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제우스 신은 서로를 비판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만족하고 있는 동물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런 동물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이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날카로운 스라소니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두더지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웃을 보는 눈과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지고한 창조주는 우리 모두를 같은 방식의 바랑꾼으로 창조했다.
오늘이나 예전의 인간 모두를
창조주는 자신의 결점을 위해서는 뒤쪽 주머니를
다른 이들의 흠을 위해서는 앞쪽 주머니를 만들어 놓았다.
[지혜로운 영혼을 위한 240 가지 이야기. 시공사. 2004.]

[H 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 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따듯한 위로가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간절한 10 월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11 월은 온정이 가득해 마음 속
어딘가 응달이 될 법한 곳곳을 따듯한 별이 드는 나날이 되길 기원합니다.